

# 다니엘서 - 제21번

절제 있게

Jeff Pippenger

2023-12-16

우리는 이사야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그 장이 이사야서의 다음 장들을 위한 맥락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들은 늦은 비를 올바른 성경적 방법론으로 규정한다. 그 방법론은 그것을 인식하고 적용할 때, 받아들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가져오는 예언적 메시지를 드러낸다.

2001년 9월 11일,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불려야 할 노래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나쳐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에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언약 관계와, 또한 1863년에 그들이 걸림돌을 거부한 사실에 근거해야 했다. 그들은 1856년에 라오디게아가 되었고, 7년, 곧 '일곱 때', 다시 말해 2,5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구하셨으나, 그들은 1863년에 그분께 문을 닫아 버렸다.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그들은 일요일 법령 때 그분의 입에서 완전히 토해내어 버리시기 전에 미리 다발로 묶이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재림운동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라오디게아의 기별로, 그것은 귀한 돌을 "보고" "맛보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짓부수는 걸림돌을 담고 있는 포도원의 기별이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어떤 재림교도든지 아직도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아"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게" 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들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직전에 있을 "한밤중의 외침" 때에, 그 기회는 영원히 끝난다.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시기에 하나님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꽃피며 봉오리를 맺어, 온 세상을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새의 뿌리가 꽃피고 봉오리를 맺게 하는 것은 늦은 비다. 이는 꽃피고 봉오리를 맺을 그 뿌리가 예언적으로 들어 올려질 기치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 기치는 곧 이새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부터 이새의 뿌리가 꽃피고 싹트게 했으며,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는 그 뿌리가 온 땅을 열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사야 27장의 일요일 법령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에서도 대표되는 점진적 역사이다. 2001년 9월 11일, 열국이 분노하고 셋째 화의 이슬람이 풀려난 뒤 곧바로 제지되면서,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여기 언급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갈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은 분노하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막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문집, 85.

그 대목에서 화이트 자매는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짧은 기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환난의 때'는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 시작하는 큰 환난과는 구별된다. 재림교에서는 미가엘이 일어설 때 시작하는 큰 환난과 구분하여 이것을 '작은 환난'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작은 환난'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으로 국가적 파멸이 시작되는 때부터,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재림운동의 최종적인 정결과 심판은 늦은 비의 '뿌림' 기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기간은 '새롭게 함'이기도 한 늦은 비가 '뿌림'으로 시작하지만, 일요일 법령 때 완전한 부어짐으로 나아가는 때이다. 셋째 화의 이슬람이 열방을 분노하게 만들 때 시작되는 그 기간에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늦은 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늦은 비를 알아보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힌다.

"많은 이들이 크게 이른비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제공하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결핍이 늦은비로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겠다고 한다.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지식을 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모든 더러움을 비워 성령의 내주를 위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제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준비했다. 지금 또한 같은 일이, 다만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사람은 축복을 구하고, 주께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완전케 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비가 상징하는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비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 507.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여 받는 이들도 있고, 인식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늦은 비는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늦은 비는 단지 체험만은 아니며, 메시지가 산출하는 체험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이 적용될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늦은 비의 메시지를 정립하는 방법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예언적 교훈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 세상 앞에 높이 들린 그 기치는 이사야에 의해 '이새의 뿌리'로 식별되며, 스물일곱 장에서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이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그 '이새의 뿌리' 된 자들은 또한 거기서 '이스라엘'로 불리며, 그들이 먼저 봉오리를 틔우고 꽃이 피며, 그 뒤에 세상을 열매로 가득 채운다. 자연의 법칙은 예언의 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연과 예언을 모두 주신 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휴면에서 깨어나며, 그 증거가 새눈이고 그 다음에 꽃이 핀다. '이새의 뿌리'인 영적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비가 부어진다. 그것은 '뿌림'으로 시작하여, 그 기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열매로 세상이 가득 찰 때 충만한 부어짐으로 나아간다.

이사야서 27장에서는 비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싹이 '돌아날 때'로 제시한다. 그 싹들이 처음 '돌아날' 때, 그 비는 '분량대로'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분량대로, 그것이 돌아날 때."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가 '분량대로'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 곧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아직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의 위대한 부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아는, 깨우침을 받은 백성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인, 전심의 헌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기심과 자기 방종이 이렇게까지 드러나 있을 때, 곧 말로 표현하면 가인의 대답,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할 만한 정신이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없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사방에서 짙어지며 만물의 끝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표징들이,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잠든 활력을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비쳐 온 빛에 비례하는 어둠이 이 영혼들을 덮칠 것이다. 최후의 결산의 그 큰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의 그림자조차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행하고, 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실과 동정심과 열성을 통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능력과 실체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내세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7월 21일.

이사야 27장은 마른 땅에서 뿌리가 돌아날 때 시작되는 늦은 비의 부어짐의 역사를, 땅이 열매로 가득 찰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밝힌다. 이 장은 "분량대로, 그것이 솟아날 때, 너는 그것과 논쟁하리라"라고 말한다. 늦은 비가 "뿌림"으로 헤아려질 때, 화이트 자매는 늦은 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비의 내림을 알아보는 이들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뒤섞여 있는 교회를 지적한다. 앞의 문단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한량없이 부어 주실 때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더 이상 섞여 있지 않게 되는 때임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밝힌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하고 전심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아닌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더 큰 부분, 곧 대다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로 묘사된다. 이는 성경적으로 '많은 이'가 부르심을 받되 '적은 이'만 택함을 받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 앞선 자정의 위기에서 섭리적으로 분리된다. 이 분리로 말미암아, 그 후 늦은 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심을 받고 '하루에 태어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한 백성이 생겨난다. 그때 이새의 뿌리가 기호로 높이 들려 세상을 열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사야 27장은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가 '분량대로'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너는 그것과 변론하리라"고 밝힌다. "분량대로, 그것이 돌아날 때, 너는 그것과 변론하리라."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즉각적인 논쟁거리가 되었다. 오늘날—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그 사건을 이슬람의 소행으로 돌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것을 어떤 형태의 글로벌리스트 음모라고 주장하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관련된 변론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말하는 '변론'이 아니다. 그 변론은 다음과 같은 예언에 관한 것이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공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내화(耐火)라고 알려진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들은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역청으로 만든 것처럼 타 버렸다. 소방차는 이 파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소방펌프를 작동할 수 없었다. 증언, 제9권, 12, 13.

재림교회는 2001년 9월 11일 직후 이와 같은 구절들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려 했다. 이것이 뉴욕시와 소방차가 이어진 화재를 진화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재림교회가 여선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저술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그러한 성취가 있는 뒤에 어찌 지붕 위에서 외치듯 선포되지 않을 수 있었던 말인가?

예언적 '논쟁'의 도래를 알리는 늦은 비의 뿌려짐이 임하는 것은 재림교의 최후의 반역도 드러낸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남은 자의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의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들이밀어—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 사탄의 최후의 기만은 성령의 증언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느니라'(잠언 29:18).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대리자들을 통해 교묘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참된 증언에 두고 있는 신뢰를 흔들려 놓을 것이다.”

“증언에 대하여 사탄적인 증오가 불붙게 될 것이다. 사탄의 역사는 교회들이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 놓는 데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의 경고와 책망과 권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탄은 자기의 기만을 들여오고 영혼들을 그의 미혹으로 결박하기 위한 그렇게 분명한 통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Selected Messages, book 1, 48.

알곡과 가라지 둘 다의 예언적 결박은 2001년 9월 11일, 예언의 영에 대한 반역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반역은 1863년에 성경을 거슬러 시작된 점진적 반역의 종결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다른 모든 백성보다 앞서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품성은 그러한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인들은 하늘의 곡간에 들여지도록 귀한 곡식처럼 단으로 묶이고, 악인들은 가라지처럼 마지막 큰 날의 불을 위해 거두어지게 될 그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증언, 제5권, 100.

이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다음의 구절을 재림주의는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는가?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들려오는가?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층층이 높아져 가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땅을 심히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얼마나 두려운 광경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이 땅에 임할 것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임할 일에 관하여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가 없다.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뒤집고 또 뒤엎는 역사로 무너질 것을 안다. 내게 주어진 빛에 비추어, 나는 파괴가 세상에 임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의 크신 권능이 한 번만 임하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쟁점은 2001년 9월 11일에 이 구절들이 성취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그때 시작될 '논쟁'이다. 그 논쟁은 올바른 방법론인가 잘못된 방법론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재림교회는 1863년에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의 열네 가지 규칙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재림교 신학자들이 쓴 성경 연구서 가운데 배도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로부터 거둬 지지를 받지 않는 책은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1863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본래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들로 대표되던 그 방법론은 제쳐지고 로마 가톨릭과 배도한 개신교의 방법론이 채택되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 성취되었을 때 시작된 그 예언적 '논쟁'은 참된 방법론인가 거짓된 방법론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글에서 이사야서 27장의 '논쟁'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규칙들—최고의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 The 1888 Materials, 403.